

무수한 이십대의

늦과 밤을 끌고 온 동성애의

또 다른 이름

낭만



내 어머니의 이십대

입이 넓은 찻잔을 매만지며 남자가 말한다.

“이제까지 저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의 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맞은편 여자는 오른손으로 천천히, 될 수 있는 한 우아하게 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다. 자존심 강한 남자는 여자를 기다린 한 시간이 못마땅하다. 차는 맑아서 그런 남자의 비뚤어진 표정까지도 담아낸다.

낮선 얼굴을 부담 없이 마주할 수 있도록 적당히 어두운 찻집은 신경 써서 잔을 내려놓지 않으면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가 울릴 정도로 조용했다. 남진과 카펜터즈를 오가는 음악만 공허하게 들렸다. 시간은 두 남녀를 사이에 두고 흘렀다. 그때 구겨진 자존심을 어찌할 수 없던 비뚤어진 표정의 아버지가 무척이나 우스웠노라고 어머니는 고백했다. 이십사 년이 지난 같은 저녁이었다.

만남의 시작은 그 찻집에서였다.

찾은 곳은 인사동.

비슷비슷하게 생긴 골목 끝이었다. 나의 이십대에는 없는, 없었던 곳을 그곳에서 발견했다. 조용하지는 않았지만 엄숙했고, 좁지 않았지만 발 내딛 곳을 살피고, 머리 지날 곳을 비꼰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밀거나 열어야 할 문이 없었기에 밖에서 기웃거리며 안을 확인하다 들어섰다.

흔히 보던 설정처럼, 제자리에서 멈춰 두리번거리면 일어서서 나를 불러줄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았지만 입구에 들어선 사람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소는 못 됐다. 낮은 천장에 기댄 나무기둥이 공간을 일정치 않게 분리 짓고 있었다. 이름모를 차를 우려내는 향과 한과의 달콤함이 연기처럼 스며들었다. 창호지에 걸려진 전등 빛도 한없이 부드러웠다. 어머니의 이십대였던가. 황금빛 분위기에 끌려 집 앞 찻집을 자주 찾았노라고 했다. 혼자였어도 상관 없었다. 음악을 듣는다는 핑계로 옆드려 귀만 열어놓거나, 책 한 권 끼고 가면 그만이었다.

시간은 두 남녀를 사이에 두고 흘렀다.

.....
.....

..... 이십사 년이 지난 같은 저녁이었다.
만남의 시작은 그 찻집에서였다.



나의 이십대

◎

지금도 그런 한가한 로맨티스트가 있을까. 현대의 로맨티스트는 찻집을 찾지 않는다. 야외 테라스가 있고 창이 넓은 카페를 찾는다. 가을별을 피해 어둡게 나 있는 곳이 아닌, 대도시를 관찰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간다. 눈요기할 것이 많은 탓이다. 카페가 '토론의 장'이었던 때도 있었다. 무늬 없는 넓은 테이블 주위에 여럿이 모여앉아 잔 너머 잔을 건네고, 말 너머 말을 나누던 시절이었다.

바보같이 텔레비전 앞에만 쭈그리고 있지 말고 우린 카페로, 선술집으로 나서야 된다. 진실을 외치기 위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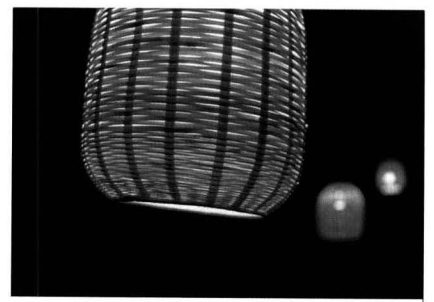
(윤영신, 《창문을 닫아도 마음을 닫아도 생각나는 사람》중)

모여서, 우리만의 화제로 부대길 곳을 찾아 들어가라는 얘기다. 작가는 이런 것을 '낭만'이라 했다. 흥미로운 것은 요즘 카페가 가진 풍경이다. 발걸음을 쉬어두기 위해 찾는 카페는 대화가 단절된 현



대인의 모습을 목말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보스러움을 탈피하려는 듯 열심히 소란스럽고, 혼자 또는 여럿으로 군집한다. 자존심 강한 남자와 콧대 높은 여자는 없다. 옛날보다 잃거나 보태진 것도 없었다. 검정과 하양을 블랙과 화이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변화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과기가 커피를 내리고 있다.

내가 자주 찾던 곳도 내려지는 커피 향이 진했다. 주문한 커피보다 그 향이 짙어 꼭 그것을 마시고 싶게 만들었다. '술수다, 저거' 일행이 말했지만 결국, 혼자 두 명치 값을 지불하고 나왔다. 쓸데없는



작가는 이런 것을 '낭만' 이라 했다.
옛날보다 잃거나 보태진 것도 없었다.
검정과 하양을 블랙과 화이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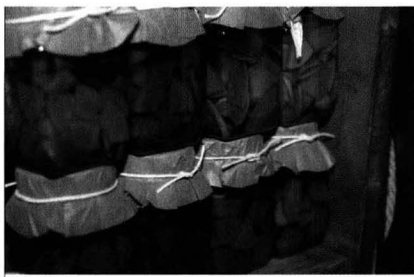
욕심이었다. 눈물처럼 똑똑 내리는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니 괜한 마음이 동한 것이었을 텐데. 아마 카페를 찾은 시간은 밤이었고, 밤에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했으니 떨어지는 커피물을 눈물이라고 믿는 건 합당하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만약 운다면, 그 눈물은 내가 마실 것이기 때문에 울어도 우는 게 아니라는 결론까지도.

실컷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로 간다. 론리 하트...

갈 곳 없는 발걸음을 묶어두는 모든 카페의 이
름이다.

저녁 어스름 짙. 카페의
그곳에서 찻집의 이십대와 카페의
이십대를 조우하자.





두 이십대를 위한 상상

◎

아이시절, 나에게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카페를 개업하는 꿈이 그랬다. 어린 마음에도 장래희망을 묻는 대답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입으로는 선생님이요 시인이요, 하면서도 실상 마음으로는 카페주인을 말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산 속에 통나무와 기타 잡기들로 꾸민 아담한 카페를 지어서 오는 손님들마다 친절하게 맞아줄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다. 잠깐이었다. 그 꿈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팔꿈치에 난 상처와 함께 머리에서 아물어갔다. 확실히 철이 들 때쯤이었다. 지금은 적어도 길 카페 사장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곳은 작가 배준석이 자주 가는 곳이라고 했다. 손님들도 여럿 모시고 가지만 그 카페의 커피맛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전유물로 느껴지는 요즘 카페 분위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차값으로 밥값을 내줄 바에는 길 카페로 간다는 말이다.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뽑아 강물이 은은하고 산자락이 깊은 그곳으로 가는, 실로 길 카페다. 그의 논리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카페 출입문을 열고 닫는 셈이다.

정말로 외로운 사람들만을 초대할거예요. 좋아요, 당신도 초대하죠. 당신에게도 초대장을 보낼게요. 더 이상 외롭다는 말도 필요 없는 장소, 론리 하트 카페로의 초대장을.

(조민희, 《론리 하트》 중)

해가 짧아졌다.

쓸쓸한 기운을 견디기 위해 실컷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로 간다. 존재하지 않는 카페, 론리 하트. 갈 곳 없는 발걸음을 묶어두는 모든 카페의 이름이다. 이방인을 만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곳에서 찻집의 이십대와 카페의 이십대를 조우하자. 저녁 어스름이면 좋겠다.

글 | 홍이현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 카페를 찾게 하는 책

《가을의 환》 김채원 지음 | 열림원 | 312쪽 | 값 9,000원 《구름을 두드리다》 배준석 지음 | 문학관 | 246쪽 | 값 8,000원 《카페에서》 채초희 지음 | 문학관 | 200쪽 | 값 8,000원 《론리 하트》 중 《론리 하트》 조민희 지음 | 생각의나무 | 314쪽 | 값 7,800원 《창문을 닫아도 마음을 닫아도 생각나는 사람》 윤영신 지음 | 북토피아 | 118쪽 | 값 3,000원